|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 **보 도 자 료** | 보다 나은 정부 |
|---|---|---|

**2019년 10월 14일(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14(월) 오전 10시 이후 보도 가능)**

| 배포일시 | 2019. 10. 14(월) | 담당부서 | 무역정책과 |
|---|---|---|---|
| 담당과장 | 박재영 과장(044-203-4020) | 담 당 자 | 김태형 서기관(044-203-4021)<br>권영무 사무관(044-203-4018)<br>최윤석 사무관(044-203-4841) |

# 2021년에 조달-통관-물류-결제 등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화

-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90% 이상 절감 기대***
- ***디지털신용보증서비스 도입,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서비스 출시***
- ***수출자금 대출용 보증 심사 16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 ***소재·부품·장비 전용관 만들어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 2021년까지「디지털 무역 기반」(uTH(u-Trade Hub) 2.0)이 구축될 경우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90% 이상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0.14(월)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하여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3.4) 이후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9.11) 등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9.11) →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10.14) → △글로벌 혁신기업 수출 대책(10월말) →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11월)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3대 전략 및 7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 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과제 ① : 혁신기술을 활용한 무역정보 빅데이터화>**

○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단일 포털(single window)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20~'21)하여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출(산업부·중기부·코트라·무역협회), 플랜트·건설(산업부·국토부·해수부), 의료(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문체부·콘텐츠진흥원), 농식품(농식품부·aT) 등

■ (사례) 중남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 A사는 해외 시장(코트라), 화장품허가(보건산업원), 콘텐츠 마케팅(콘텐츠진흥원) 정보를 각 공공기관에 일일이 접속해서 찾아야 했지만 향후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 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기 맞춤형 통계(무역통계진흥원)」와 **「My Trade 서비스**(무역협회)」를 제공한다.

■ (사례) 수출기업 B사가 「My Trade 서비스」에서 수출희망품목 HS 코드 입력 → 국가별 국내총생산·인구·신용도·수입규모·시장점유율·관세율 등을 분석 후 적합한 유망시장 추천

**< 과제 ② :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

○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 유관단체(무역협회, 은행연합회), 케이티넷 등이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19.12월)하여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한다.

■ (사례) 전자상거래 기업 C사는 대금 지급을 위하여 은행에 외국환 지급 신청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이메일 등으로 계약서, 인보이스 등을 제출하였으나,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지급증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업점 방문 없이 지급신청과 동시에 분산공유원장에 근거서류 공유 후 신속하게 외국환을 지급 가능하고 외국환은행도 근거서류 보관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 현재는 송금방식(O/A, open account)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시 온라인(14%)과 오프라인(86%)을 병행하고 있으나, **2020.7월부터는 온라인매입만 가능**하게 되어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하였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 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3무**(무방문·무서류·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19년「무역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 (6월) → 플랫폼 구축 (10억원, 무역보험공사)

■ (사례) 수출 중소기업 D사는 무역보험공사의 신용평가 보증심사를 받기 위하여 기존 17건 서류를 수기 작성 제출하고 최대 16일을 기다려야 했지만,「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도입으로 온라인 서류 1건을 제출하고, 3일만에 결과를 받을 수 있다.

2 둘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하고 **플랫폼 수출**을 통하여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 < 과제 ③ :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 >

○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 (u-Trade Hub : uTH 2.0)」을 3년간('19~'21) 구축해 기업의 조달 → **계약 → 통관 → 물류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례) 전자무역 시스템을 이용했던 무역업체 E사는 기존에는 관세사, 운송사에게 통관정보(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수작업으로 전달하였지만,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 도입 후에는 별다른 작업 없이 바로 통관정보를 유관기관에 전달할 수 있게 된다.

○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개정('19.하)

### < 과제 ④ :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

○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하여 **신남방*·신북방 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수요를 발굴**한다.

* 설명회 : ('19.하) 베트남·라오스 → ('20.상)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하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한다.

3 셋째,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응하여 **기업 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 < 과제 ⑤ : 소재 · 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 >

○ 소재 · 부품 · 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바이코리아**(코트라의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내 소재 · 부품 · 장비 전용관을 구축**('20.상)해 해외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업간거래 플랫폼**을 △**산업**(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20).

* **❶바이 코리아(코트라, 산업)** :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재 중심, **❷고 비즈 코리아(중진공, 기업)** : 중소·수출초보기업 등, **❸트레이드 코리아(무역협회, 시장)** : 對중국 등 유망시장

### < 과제 ⑥ : 소비재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지원 강화 >

○ 업종별 · 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지원**(70개사 40억원)하고, 유명인(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고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기업**도 **지원**한다('20.상)

○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우리기업 제품의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 칭다오, 호치민, 자카르타 등 총 7개 무역관의 19개 해외 유통망(타오바오, 모굴, 비보 몰 등)에서 판촉·홍보 추진

## < 과제 ⑦ :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조성 >

○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하여 간이신고와 목록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 기준 금액(신고금액 200만원 이하) 유지 / 200만원 초과시 일반수출신고 이용

○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하여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고(관세청), 대중(對中)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인프라****를 구축(해수부)한다.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재포장한 후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이-커머스 클러스터」(인천남항 아암 물류2단지 12만㎡, ~'22년, 해수부)

□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upgrade)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으며,

○ "정부·무역유관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제공**,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기업 간 전자상거래 촉진**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정차관은 또 앞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김태형 서기관(☎ 044-203-4021), 최윤석 사무관(☎ 044-203-48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2019. 10. 14

관계부처 합동

#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주요 현황 및 평가 ..... 2

Ⅲ. 기본 방향 ..... 4

Ⅳ. 추진과제 ..... 5

1.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2.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Ⅴ. 향후계획 ..... 16

# Ⅰ. 추진 배경

## ◇ 글로벌 온라인 무역 성장 등 무역거래의 디지털화 진행

□ 5G·AI·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에 기반한 **超연결 사회가 가속화**

* 5G 세계시장 전망(KISDI, 조원) : ('19) 8.2 → ('23) 394.5 → ('26) 1,161

○ 이에 따라 물류·통관 등 **무역거래**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점 경쟁**이 치열

▸ (아마존): △B2C 미국, 일본 등 5개국 사용률 90% △ B2B 매출액 100억 달러 돌파('18)
▸ (머스크·IBM, 「트레이드 렌즈」) : 블록체인 기반 거래·운송·선적 실시간 관리('18.8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온라인 무역**(digital trade)**도 빠르게 성장**

* 온라인 무역 규모 (알리리서치·Statista, 단위 : 조 달러) :
△(B2C) ('17) 2.3 → ('21) 4.9 / △(B2B) ('13) 5.8 → ('17) 7.7

## ◇ 디지털 무역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출 성장 기회

□ **무역 거래의 디지털화**는 기업의 **거래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

○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부족한 **수출 초보·내수기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수출 지원**을 통해 **新시장 진출** 가능

< 주요국 중소기업의 인터넷 활용에 따른 매출 성장률 비교 (BCG, '12) >

| 구 분 | 중 국 | 독 일 | 미 국 | 한 국 |
|---|---|---|---|---|
| 오프라인 위주 | 9 | 4 | △5 | △5 |
| 온라인 활용 | 25 | 18 | 10 | 6 |

□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디지털 무역은 **우리 수출**에 **새로운 기회**

○ 우리는 강력한 **ICT·제조업 기반, 세계 6위 수출규모** 등 강점*을 갖고 있으며, **한류** 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수출도 급증**('19.상, +50%)

* (제조업) △WEF 2위('18) △UNIDO 5위('15) (ICT) △ITU 2위 ('17) (수출) 세계 6위('18)

◇ **과감한 디지털 무역 전환**을 통해 **단기 수출활력 제고** 및 품목·시장·기업 등 근본적 **수출구조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

# Ⅱ. 주요 현황 및 평가

## ◇ 그간 전자무역시스템 조기 도입 등을 통해 빠르게 대응

□ '91년 EDI 기반 무역 자동화를 구현하여 **디지털 무역을 조기 도입**

* ('91년) EDI 기반 무역 자동화 → ('03년) 인터넷 기반 전자무역(uTH) 구축·운영

○ '03년 구축된 **전자무역 시스템**(uTH)은 연간 4억건 이상의 무역거래를 지원하는 **범국가 차원**의 **무역거래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 무역 관련 전자문서 중계 실적('18년) : 94,207개社, 1,152종 문서, 4.3억건 중계

○ **OECD 무역원활화 평가 3위**('18년)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

***** (1위) 네덜란드 (2위) 미국 **(3위) 한국** (4위) 노르웨이 (5위) 프랑스 (6위) 독일 (7위) 스웨덴 (8위) 싱가포르 (9위) 아일랜드 (10위) 영국

□ 한편, ICT 기반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수출**도 빠르게 성장

○ ICT 인프라, 한류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美·中·日·獨에 이은 **세계 5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성장

< '17년 기준 디지털 상거래 시장규모 (단위 : 조 달러, UNCTAD, '19.6월) >

| 국 가 | 미 국 | 일 본 | 중 국 | 독 일 | 한 국 | 전세계 |
|---|---|---|---|---|---|---|
| 규 모 | 8.9 | 2.9 | 1.9 | 1.5 | 1.3 | 29.3 |

○ 최근 이어지는 수출 부진에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

- 특히, 잠재력이 큰 **중국**(+61.0%)과 **아세안**(+12.1%) 등에서 급성장

<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 (통계청, 억원) >

| 구 분 | '17 | | '18 | | '19.상반기 |
|---|---|---|---|---|---|
| | 전체 | 상반기 | 전체 | 1Q | |
| 실 적 | 29,509 | 13,431 | 36,039 | 17,218 | **25,804 (+50.0%)** |

## ◇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출 지원 플랫폼 경쟁력은 미흡

□ 수출기업들은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 △복잡한 **수출 업무 간소화**, △**전자상거래 수출 특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

### ❶ 공급자 위주의 수출지원 서비스

○ 무역통계·시장동향 위주의 **단편적 정보 제공**, 지원기관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서류·대면 중심의 금융 관행** 등 기업 활용에 애로

▪ (업계 현황) 수출기업 자금조달 애로사항('19.6) : △보증서 위주 대출 등 신용대출 부족(39.6%), △까다로운 대출심사(23.7%), △높은 대출금리(16.1%)

### ❷ 여전히 복잡한 수출 업무 부담

○ **종이 없는 전자문서 중계 위주**로 운영되어 계약 → 물류 → 통관 → 결제 등 실제 **수출 全 과정**에 걸친 **거래비용 절감**에 한계

▪ (업계 현황) 중소 수출기업 대상 무역거래업무 정보화 현황 설문조사('19.4)
→ 정보시스템 未구축 : 75%, 자체개발 S/W : 19%, ERP 구축 : 17%

### ❸ 전자상거래 수출 특화 지원 미흡

○ **소액·다품종** 거래에 맞는 전자상거래 **수출 인프라가 부족**하며, 성장 잠재력이 큰 소재·부품 등 **기업간 거래**(B2B) 지원 필요

▪ 전세계 전자상거래 **B2B 시장('17. 7.7조 달러)**은 **B2C(2.3조 달러)**의 3.3배 규모

◇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돌파구

○ **분산된 수출 정보와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기업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계약·물류·통관·결제 등 **수출 全 과정**을 아우르는 **무역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해 기업의 **수출비용 부담 대폭 절감**

○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수출방식 활용** 강화

## Ⅲ. 기본 방향

**비전**

新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무역 강국 도약

**목표**

- 수요자 중심의 新수출지원 서비스
-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 소재·부품 등 전자상거래 수출 다각화

**3대 추진전략 + 7대 정책과제**

| 추진전략 | (1)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 (2)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 (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
|---|---|---|---|
| 정책과제 | ①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br>②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 ①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br>②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 ① 新전자상거래 수출(B2B) 확대<br>②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촉진<br>③ 전자상거래 특화 인프라 조성 |

# Ⅳ. 세부 추진과제

##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방안」 주요 내용

### 1 수요자 중심의 新수출지원 서비스 → 새로운 수출기회 확보

**❶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정보제공 → 품목추천 → 지원연계 → 공급망 진출 → 애로해소 등 **수출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서비스를 연계·맞춤형** 지원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9~'20, 산업부·Kotra) 등

**❷** 대면·서류 위주의 **무역금융 지원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개선

*「디지털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신규 추진 ('19.하, 무역보험공사)

### 2 쉽고 편리한 무역업무 지원 → 실제 수출업무 부담 절감

**❸ 디지털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 구축**

- 계약 → 물류 → 통관 등 **수출** 全 **단계**에 걸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단계별 연계** 강화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사업」 ('19~'21, 산업부)

**❹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추진**

○ 新남방·新북방 중심으로 **수요·역량**을 고려한 **단계별 수출 강화**

### 3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 새로운 수출방식 활용

**❺** 공공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B2B 기반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 기존 공공 플랫폼 → 산업·기업·시장 등 3대 테마별 플랫폼으로 차별화

**❻ 다양한 플랫폼*** 특성을 고려한 **전자상거래**(B2C) **수출 지원 강화**

* (국내) 업종별 특화 (현지) 무역관 활용·연계 (글로벌) 온라인 수출 대행기업

**❼** 통관·물류·인력 등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 구축

* 전자상거래 전용 글로벌 배송센터 및 e-Commerce 클러스터 등

# 1 수요자 중심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 [1]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연계

◇ **다양한 수출 지원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되, 기관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가 큰 **5대 분야별로 특화 지원**

| **정보 제공** | **시장 추천** | **지원 연계** | **공급망 구축** | **애로 해소** |
|---|---|---|---|---|
| 기초 정보가 필요한 기업 | 구체적 정보가 필요한 기업 |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 | 바이어 정보가 필요한 기업 | FTA 애로를 겪는 기업 |
| ↳수출·해외 정보 통합 제공 | ↳수출 품목별 시장 추천 | ↳ 맞춤형 수출 마케팅 연계 |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 | ↳FTA 활용 애로 밀착 관리 |
|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 **「My Trade 서비스」** |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 **「글로벌 파트너링 플랫폼」** | **「전주기 FTA 통합관리시스템」** |

□ **(정보제공) 분산된 수출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 부처·지원기관 등이 보유한 **수출·해외진출 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Map of Maps) 구축 → 기업의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구축 추진 : ('20~, 기재부)

‣ (**업계 의견**) 여러 기관에서 현지진출 및 수출 관련 대외경제 정보를 제공 중이나,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활용이 어렵고 불편

<「대외경제 통합 정보센터」 구성(안) >

| | | | |
|---|---|---|---|
| **수출·해외진출** (산업부·중기부 코트라·무협 등) | **플랜트·건설** (국토부·해수부· 해외건설협회 등) | **의 료** (복지부·보건산업 진흥원 등) | **문화·콘텐츠** (문체부· 콘텐츠진흥원 등) |
| **식 품** (농림부·해수부· aT 등) | **환 경** (환경부·생산기술 연구원 등) | **일자리** (고용부·외교부· 산업인력공단 등) | **법 제** (법제처· 관세청 등) |

**「대외경제 통합 정보센터」**

□ (시장추천) **실제 수출에 필요한 구체적 정보 제공**

○ **수출입 실적**(기업규모별, 거래형태별), **유망시장,** 세율·규제 등 **시장별 특화 정보**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 제공

* △「中企 맞춤형 통계」('19.7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My Trade 서비스」('19.9월, 무협)

▸ (**예시**) 수출희망 품목 HS 코드 입력 → 국가별 GDP·인구·신용도·수입규모·시장 점유율·세율 등을 분석 후 유망 시장 추천

□ (지원연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 마케팅 지원 발굴·연계**

○ **기업별 수출 활동지수**(수출액·참여현황·상담횟수 등)를 모니터링 하여 수출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특화 컨설팅 제공** ('20년, Kotra)

○ **축적된 수출 마케팅 정보**(77만개社, 130만건)를 바탕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출·해외진출·투자 등 **맞춤형 마케팅** 지원

*「무역·투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19~'20, 산업부·Kotra)

□ (공급망 구축) **안정적 시장 확보**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 다양한 지원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 유망 바이어 정보**를 **「글로벌 파트너링**(GP)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통합·지원**

○ 기업별 구매 패턴, 협력사 네트워크, 관심품목 등을 분석해 **국내 수출기업**에 적합한 **글로벌 기업 발굴·연계** ('20.상, Kotra)

□ (애로해소) **FTA 관련 애로사항**을 **전주기 차원에서 밀착 관리**

○ FTA 관련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애로 제기→해결→정책반영** 등 **全주기 관리 강화**

* FTA 이행·활용협의회, 업종별 기업간담회, 비관세장벽협의회, 수입규제협의회 등

**「전주기 FTA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산업부) : ('20) 8억원

## (2)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

### ◇ 기업 수요가 큰 분야 중심으로 무역금융 이용 편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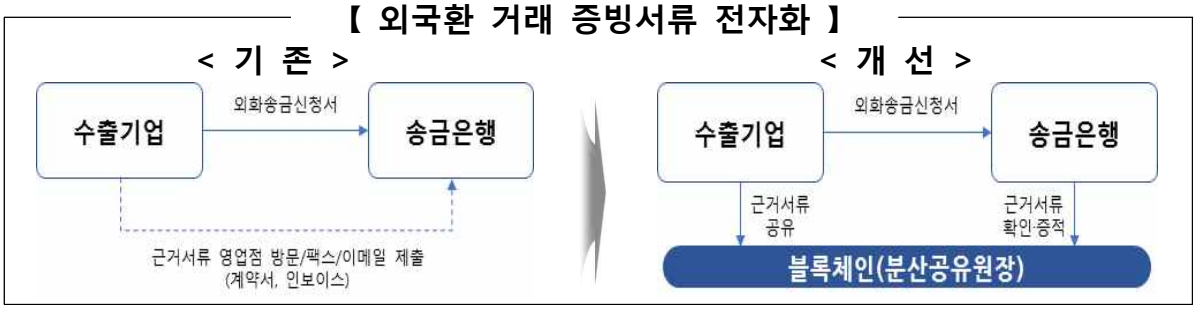
#### □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추진

○ 문서보관·확인 등 **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환은행(7개)과 협력해 **블록체인 상용서비스 개시** ('19.12월)

* (외국환거래규정)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거래시 지급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출

■ **(사례)** 중소 수출기업 A社는 최근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였으나,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거 외국환지급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애로 호소

**【 외국환 거래 증빙서류 전자화 】**




#### □ 수출채권 전자매입 일원화로 이중·초과매입 방지 ('20.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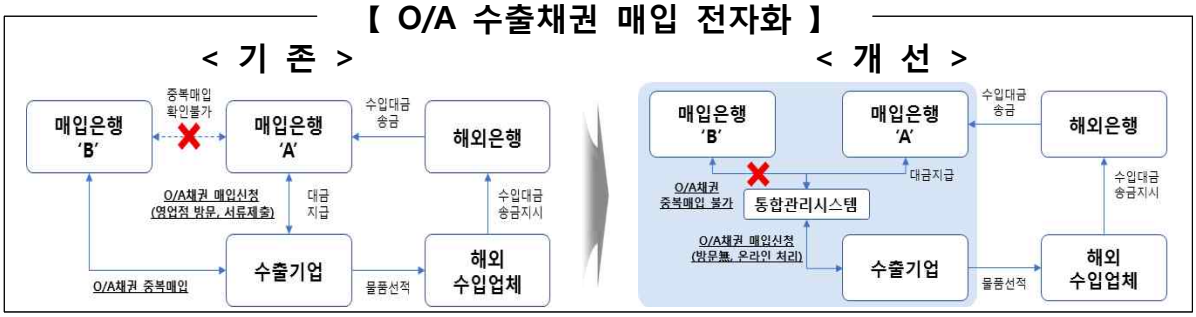
○ 은행연합회 등과 협력하여 총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송금 방식 수출채권**(Open Account)부터 일원화

- 중장기적으로 신용장 등 **전체 수출채권으로 확대** 추진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개정 ('20.상, 은행연합회)

■ **(사례)** "수출채권 매입 신청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해야"

**【 O/A 수출채권 매입 전자화 】**



□ **간접수출기업의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촉진

○ **정책금융기관**(기업평가·보증·채권매입), **전자무역기반사업자**(구매확인서 검증 등)간 협력을 통해 **간접수출기업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촉진

□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 신규 추진 ('19.하)

○ **중소기업 전용**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신용평가·보증심사 등 **업무처리를 16일 → 3일 이내**로 대폭 단축

* '19년도「무역보험기금 운용계획」변경 (6월) → 플랫폼 구축 (10억원, 무역보험공사)

**【 디지털 수출신용보증 서비스 】**




□ **무역보험·보증 등 온라인**(모바일) **전용 상품 개발**

○ **(보험)** 신청 → 보험한도 책정 → 보험료 납입 → 보험증권 발급 등 무역보험 **전 과정을 1일 이내 신속 처리** ('20.상)

○ **(보증)** 온라인 자가진단, 자동심사 등을 통해 수출초보·희망기업에 대하여 **3無 서비스** (無방문·無서류·無상담) 지원 ('20.하)

* 온라인으로 무역금융(보증) 처리시 수출中企의 은행 대출이자 20~30 % 절감 기대

**【 모바일 원스톱 보증 · 대출 연계 서비스 】**



# 2 디지털 무역 플랫폼 선도

## (1) 쉽고 편리한 무역 업무지원 플랫폼 구축

### ◇ 혁신기술을 활용해 수출기업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

□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활용 촉진

○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이 **수출 全 과정**에 걸쳐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 구축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사업」('19~'21, 산업부)

< 디지털 무역 플랫폼 비교 >

| 구 분 | 기 존 | | 개 선 |
|---|---|---|---|
| 범 위 | ‣ 금융·물류·통관 등 분절 | | ‣ 수출 全과정 연계·통합 |
| 방 식 | ‣ 전자문서 중계 | ⇨ | ‣ 데이터 공유·유통, 오픈 API |
| 대 상 | ‣ 전통무역(B2B 중심) | | ‣ 전통무역 + 전자상거래 무역 |

○ **영업비밀을 제외한 통계성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기업별 정보를 수출 지원기관과 공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개정 ('19.하)

**「무역정보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개시('19.10월, 관세청·무역통계진흥원)

■ (**사례**) 신규 수출거래처 확보 추진 중 무역정보(제품·시장정보 등)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어 해외바이어 발굴에 애로 (간접 수출기업 A社)

### ◇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통해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조달) 수출상품·거래선 발굴·조달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 **온라인 수출기업과 중소 제조기업**간 **상품·공급자 검색**, 온라인 상담 등 **수출소싱**을 위한 **협업 플랫폼** 제공 ('21년)

○ 견적·업체 선정·계약 등 **거래절차 全 과정을 지원**하고, **해외 조달기관 연계** 등을 통한 신규 수출확대 지원 ('21년)

■ (**사례**) 구매기업의 여건에 따라 공급물량 조정·대금회수 지연 등 발생 → 거래선 다양화 필요 (부품 제조기업 B社)

□ (**통관**) 복잡하고 불편한 **통관·원산지 관리 부담 간소화**

○ 기업별로 **다른 문서양식과 수작업** 기반으로 진행되는 **무역거래 정보 표준화**를 통해 **거래정보간 연계·통합** 지원('19.하, 시범사업)

■ (**사례**) 상업송장·포장명세서 등을 수작업 기반의 다양한 형태(엑셀·PDF·팩스 등)로 유관기관(관세사·운송사 등)에 전달 → 거래오류 발생 및 공유 곤란 (전자기기 C社)

○ 자체 역량이 취약한 **소기업 대상 '간편형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원산지 증명발급시스템 서류 부담***도 간소화

* (현재)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FTA-Korea) 별도신청 필요 → (개선) 별도신청 면제

□ (**물류**) **디지털 물류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효율화 추진**

○ 물류 거점별로 **수출화물 글로벌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제공*하고, 운송비·통관 수수료 등 **물류비용 처리**까지 **한 번에 지원****

* 수출화물 위치정보 제공 ('19.하) → 수출입 물류비용 전자수납 지원 ('20.상)

* 최적 물류사 검색·추천을 위한 「지능형 통합물류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21.12)

■ (**사례**) 수출물품 인도조건 대비 물류비용·화물포장 견적을 사전 산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서비스 필요 (화장품 D社)

○ 육·해상 물류 설비 및 정보 연계성 제고 등 **스마트화 추진***

* 관계부처 T/F ('19.8, 해수·국토·기재·산업·관세·4차위) → 「수출입 물류 효율화 전략」 수립 ('20)

◇ (**기대효과**) 수출신고 소요 **시간·비용**의 **90% 이상** 절감

■ **수출신고 소요시간·비용 절감** (디지털 무역기반 구축 시범사업 참여 161개社 조사)
: (시간) 1시간 → **5분 이내** (△92%) / (비용) 422만원 → **38만원** (△91%)

## (2) 디지털 무역의 글로벌 확산

### ◇ 시장별 특성과 국제 규범을 활용한 해외진출 촉진

□ 시장별 수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지원**

○ 잠재력이 큰 **新남방·新북방 시장** 중심으로 **유형별 컨설팅, 타당성 조사**(F/S), **디지털 무역 플랫폼** 수출 등 **단계적 해외진출** 지원

< 단계적 해외진출 추진 >

| 구 분 | 주요 대상 |
|---|---|
| 중점 협력국 | ‣ 디지털 무역 플랫폼 도입 추진 국가 (베트남, 우즈벡 등) |
| 수출 잠재국 | ‣ 디지털 무역 플랫폼 도입 이전 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등) |
| 시스템 고도화 | ‣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후 고도화 국가 (브라질, 칠레 등) |

○ **(단기) 중점 협력국**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

■ (우즈벡) 국가 공공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19~'22 67억원)
(페 루) 중소기업 수출지원 전자무역 개선 사업 ('19~'20 550만 달러)

- 또한, 新남방 지역 중심으로 설명회 등 **추가수요 발굴**

* 설명회 : ('19.하) 베트남·라오스 → ('20.상) 인도네시아·필리핀·미얀마

○ **(중장기)** 잠재 수요가 큰 **新북방 지역 중심 수출 지원**

- 정상외교, 정부간 협력 MOU 체결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 지원

* 협력지원 후보국(예) : 우즈벡 → 카자흐스탄·벨라루스 등 → EAEU 5개국

□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도 적극 대응**

○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하여, 향후 FTA에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비즈니스 원활화를 위한 **국제규범 모색**과 **국내제도 개선 추진**

# 3 전자상거래 수출의 질적 확대

## (1) 소재·부품 등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B2B)

### ◇ 플랫폼 특성, 바이어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 기존 **공공 플랫폼**을 기업 수요를 고려한 **테마별 플랫폼으로 재편**

○ **공공 플랫폼**을 △**산업**(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 ('19.하)

* ❶**Buy Korea(산업)** :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재 중심 ❷**Go Biz Korea(기업)** : 중소기업, 수출초보기업 등 ❸**Trade Korea(시장)** : 對중국 등 유망시장

○ **3대 테마별 플랫폼간 연계**(3개기관 MOU 체결) 및 **단계적 차별화** ('20)

- 각 플랫폼이 보유한 거래정보 중 **영업비밀을 제외한 데이터 공유**
- **차별화 전략 수립** 및 **One Window 구축 협의**

□ **기업간 거래**(B2B) **플랫폼**(market place) **특성**을 고려한 **특화 지원**

○ **바이 코리아**(KOTRA) 등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기업, 세계 일류상품, 소비재 선도기업** 등 우수제품 집중 홍보

- 바이어 편의를 위한 **결제수단 추가**(Union Pay 등), 글로벌 플랫폼 수준 **상품 D/B 보강** 등 **기업간 거래**(B2B) **플랫폼** 개편 ('19.11월)

* (예) Buy Korea : 카테고리 세분화(608개 → 5596개), 번역 추가(중국어 등 4개어) 등
** 기대효과('18→'20) : △ 방문 1,600만명 → 1,900만명 △ 상품DB : 20만개 → 25만개

-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과 연계하여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韓 중간재·신기술 전문기업** 매칭 추진*('20.)

* 주요 소재·신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은 오픈 플랫폼보다는 비공개 플랫폼 선호

- 조선·기자재 등 주요 **업종별 거래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민간 플랫폼간 상품 상호 추천, 공동 프로모션** 등을 추진

* 조선기자재 플랫폼 구축, 안경 플랫폼(eyenshop.com) 고도화('19.하)

## (2) 소비재 중심의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강화 (B2C)

### ◇ 빠른 트렌드 변화, 플랫폼 특성 등을 고려한 밀착 지원

□ **업종별·테마별로 전문화된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육성**

○ 업종·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기술·마케팅 등 지원** ('19년, 70개사, 40억원)

* (선정기준) 수출준비 정도, 마케팅 역량, 차별성, 활용계획, 경영성과 등

○ 글로벌 전문몰 후보기업을 발굴하여 인플루언서(예 : 왕홍), 유튜브 동영상 등과 **한류를 결합한 마케팅 추진**('20년, 잠정)

□ **'시장별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밀착 지원**

| 유 럽 | 중 국 | 일 본 | 동남아 |
|---|---|---|---|
| 패션 프리미엄몰<br>(Far Fetch 등) | 비디오커머스<br>(모구지에) | 패션몰<br>(ZozoTown) | 모바일 중심<br>(Shopee) |

○ 코트라 전세계 네트워크(해외 무역관)를 활용하여 **온라인 판촉전, 설명회, 네트워킹** 등 전방위 현지 지원('19. 25개 무역관, 6억원)

○ **시장 규모, 성장세**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 협업 플랫폼*** 선정 → **코리아 세일 페스타**(11월) 등과 연계한 집중 마케팅(온라인 배너 등)

* 총 7개 무역관 19개 해외 유통망 추진 예정(중국, 동남아, 중남미 등)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수출성장 지원**

○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직접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입점·마케팅 지원*** ('19년, 3,000개사, 90억원)

* 지원내용 : 상품정보 번역, 점포개설 비용, 마케팅, 고객대응 등

○ **수출 역량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온라인 수출 대행기업***을 활용해 맞춤형 지원 강화 ('18년, 2,000→ '19년, 2,500개사, 73억원)

* 전문기업이 중소기업과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全 과정을 대행

## (3) 전자상거래 맞춤형 수출 촉진 인프라 조성

### ◇ 공급자 위주의 인프라 조성을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

□ **소량·다품종 위주 거래** 특성을 고려한 **수출신고 절차 간소화**

○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해서는 **주문·배송정보**를 기초로 수출신고·실적 증명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19년, 관세청)

■ 수출건수('18, 관세청) : △전자상거래 961만건(+36%), △일반수출 3,080만건(+6.3%)

○ **온라인 쇼핑몰, 중소기업**도 편리하게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오픈 API** 등 다양한 연계방식 제공

○ **간이신고와 목록제출**(특송·우편물)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수출신고서식**으로 **일원화 추진***('19, 관세청)

* 기준 금액(신고금액 200만원이하) 유지 / 200만원 초과시 일반수출신고 이용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복합 물류 인프라 구축**

○ 글로벌 기업 대상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유치 등 아시아 전자상거래 물류허브 육성(~'21, 관세청)

* **G**lobal **D**istribution **C**enter :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재포장한 후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

○ 對中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 인프라** 구축 추진

* 「e-Commerce 클러스터」(인천남항 아암 물류2단지 12만㎡, ~'22년, 해수부)
** 전자상거래 수출전용 통관물류센터' 구축 시범사업 ('19, 관세청)

□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기반 구축 및 청년인력 양성 강화**

○ 국가 차원의 **전자상거래 수출 통계 분석 시스템 구축** 추진*

*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 구축 ('19, 관세청), 중소기업 분야 연구용역 ('19, 중기부)

○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마케팅 등 실습과정을 포함한 **전문 교육과정 지원** 및 **청년 일자리 매칭 지원 확대***

* 전문인력 양성(20개 대학) : ('19) 2.5억원 → ('20) 3.8억원

# Ⅴ. 추진계획

## ◇ 「디지털 무역 촉진 협의회」 중심으로 연계·협력 강화

□ 범정부·유관기관으로 **「디지털 무역 촉진 협의회」** 운영

○ 계약 → 제작 → 통관·물류 → 결제·대금회수 등 **수출 단계별로 전문 플랫폼간 연계·활용**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 (구성) :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주재), 산업부·기재부·중기부·국토부·농식품부·금융위·관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 Kotra·무보.중진공·무역협회·aT·KTNet 등 유관기관 임원

○ 시범사업, 플랫폼 구축 **초기 단계부터** 유관기관간 **협의** 강화

- 외국환은행, 은행연합회, 무역협회, KTNet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 블록체인 협의회」 운영 ('19.10월)

- 필요시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장관·무역협회장)」 보고·확정

□ 아울러, 법률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규정**부터 **정비** 추진

| 개정·변경 추진 규정·계획 | 소 관 |
|---|---|
| ‣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 산업부 |
| ‣ 대외무역관리규정 | 산업부 |
| ‣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 은행연합회 |
| ‣ 무역보험기금 운용계획 | 무 보 |